概觀 : 아세아共產主義와 民族主義*

李 相 禹

I

汎世界的 普遍이데올로기로 출발한 마르크스-레닌主義는 아세아에 들어와서 反外勢民族主義와 결합함으로써 강력한 革命理念으로 昇華하였다. 그러나 이 결합은 理論的이라고 하기 보다는 運動과정에서 共通敵의 발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마르크스-레닌主義가 아세아에 受容되던 20세기초에는 韓國은 日本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中國은 日本의 帝國主義침략을 받기 시작하고 있을 때였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階級主義 鬪爭路線은 支配者인 日本帝國主義에 대항하는 韓國 및 中國의 民族解放運動과 맥을 같이 하게 되어 自然스러운 결합을 이루게 된 것이다.

마르크스主義는 王朝時代의 貴族支配層과 더불어 新興 브르조아階級의 支配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 階級解放의 指導理念으로 발전된 革命이데올로기이다. 그런데 20世紀初의 日本植民統治下의 韓國社會에서나 日本帝國主義侵略과 투쟁하고 있던 中國社會에서는 支配者가 日本侵略者여서 反부르조아 프롤레타리아 解放鬪爭과 反日本帝國主義 民族解放鬪爭은 같은 鬪爭目標를 갖게 되었으며 反日鬪爭 과정에서 마르크스主義는 자연스럽게 아세아 民族主義運動과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원래 革命이데올로기란 旣存體制否定의 論理로 등장한다. 한 時代 한

* 이 硏究는 1986年度 文敎部 共產圈硏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學校 東亞硏究所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社會가 당면하고 있는 歷史的 課題의 해결책으로 提示되는 行爲指針이 곧 革命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現實體制의 强한 否定일수록 매력적이며 높은 설득력을 갖는 지도이념이 되게 되어 있다.

20세기초의 中國과 韓國社會가 해결해야 했던 歷史的 課題는 크게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첫번째 과제는 民主化의 과제였다. 專制王朝의 支配體制下에서 臣民의 지위에 머물러 있던 一般市民의 民權爭取運動이었다. 西歐社會에서의 市民革命에 자극받아 "開化"된 知識人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民權運動은 中國의 경우는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활발히 진행되었었으며, 韓國의 경우는 좀더 늦어 19세기 末에 가서야 胎動하기 시작하였었다.

두번째 課題는 "民族解放"의 과제였다. 中國의 경우 民族解放運動은 아편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列强의 침탈로 부터 中國의 自主權을 회복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어 20세기初에 들어서서는 새로운 침략세력인 日本帝國主義에 대한 抵抗運動으로 발전되었으며 특히 異民族王朝인 淸朝支配에서 漢族의 解放을 쟁취해야 한다는 漢民族主義와 결부되어 王政타도의 民權運動과의 相乘作用을 거쳐 거센 國民運動으로 발전하였다. 韓國의 경우에는 淸日戰爭, 露日戰爭을 겪으면서 韓國에서의 獨占的 支配權을 행사하게 된 日本帝國主義에 대한 抵抗運動으로 民族解放運動은 方向을 잡게 되었다.

세번째 課題는 平民의 生活向上課題였었다. 中國과 韓國 모두 人口가 조밀한 農業國家여서 전체적으로 極貧한 상태였었으며 특히 土地制度의 착취적 양태 등으로 인해 農民의 생활상은 비참할 정도였었다. 地主계층의 착취에서 農民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社會主義的 改革의 必要性이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歷史的 課題로 등장하게 되었었다.

이상에서 열거한 세가지 課題는 中國, 韓國, 日本 등 아세아國家에 공통으로 부과된 것들이었으나 각국의 축적된 社會的 力量과 內外與件의 差등으로 對應方法이 각각 달랐었다.

日本의 경우는 우선 外勢의 직접적 침탈이 없어 民族解放의 과제가 사

실상 없었던 셈이었으며, 1868년의 明治維新 이래 점진적인 民權伸張을 추진할 수 있어 革命的 改革의 必要가 없었으며, 한발 앞선 西歐化의 利點을 활용하여 韓國과 中國에 대해 帝國主義的 침탈을 감행함으로써 國民의 生活水準 向上을 他國희생으로 이룩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日本은 革命的 改革없이 세가지 近代化의 課題를 풀어나갈 수 있었던 셈이다.

中國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다. 中國의 政治指導者들은 民族解放, 民主化, 經濟體制에서의 社會主義的 改革을 통한 國民生活水準의 向上이라는 세가지 歷史的 課題를 民族, 民權, 民生의 셋으로 압축한 「三民主義」를 지도지침으로 확정해 놓고 國民革命을 전개했었으나 內外與件이 순탄치 않아 苦戰을 면할 수 없었다. 우선 外部의 帝國主義에 효과적으로 저항하기 위해서는 無能한 淸朝를 타도하는 民主革命을 선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 民主革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軍閥과 財閥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농민착취세력들인 이들 軍閥과 財閥과의 협력 필요성 때문에 民生革命을 留保할 수 밖에 없게 되어 三民主義革命은 不均衡된 상태에서 추진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中國에서의 國民黨革命은 反動的 淸朝를 타도하고 統一된 共和政府를 세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분명 성공적인 革命이었으나 革命추진과정에서 農民을 중심으로 한 一般市民의 지지를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失敗한 革命이었다. 물론 그 失敗는 不可避한 것이었고 또한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中國共產黨의 도전을 받게 된 1920년대라고 하는 時點을 기준으로 본다면 변명할 수 없는 失敗였다고 할 수 있다.

中國國民黨은 近代化의 세가지 課題中 淸朝를 타도하고 中國에 統一된 共和政府를 세우는 民權主義 과제와 日本帝國主義 등의 外勢와 싸워 中國民族의 自主權을 회복한 民族解放의 과제는 成功的으로 성취했었지만, 民生主義革命 추진의 기회는 中國共產黨에게 빼앗기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韓國의 경우는 사정이 더 나빴다. 韓國은 한발 늦은 "開化"로 인하여 미처 民權運動을 제대로 전개해 보기도 전에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로 전

락하고 말아 결국 日本帝國主義와 싸워 國權을 회복하는 民族解放의 課題만이 모든 것에 앞서는 과제로 浮上했었다. 民權運動, 民生運動 등은 民族解放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추진될 수 없었기 때문에 韓國의 경우, 모든 改革努力은 民族解放運動으로 歸一되었었으며 다른 모든 運動은 民族解放의 성취까지 留保되었었다.

Ⅱ

中國에서의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受容은 中國 國民黨革命 과정에서 하나의 補完道具로 이루어졌다.

陳獨秀, 李大釗 등 海外留學生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마르크스主義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革命이데올로기로 받아졌다기 보다는 진행중인 中國國民革命의 補完的 理論으로 受容되기 시작했다.[1] 例를 들어 中國에서 최초로 마르크스主義研究會를 만들고 共產主義理論을 中國에 소개했던 李大釗의 경우를 본다면 그의 관심은 "새로운 中國의 건설", "中國人民의 未來의 영광"에 있었고 唯物論 보다는 Bergson 등의 主意主義에 심취해 있었다. 李大釗는 마르크시즘의 國際性 중에서 反帝國主義 주장에 끌려 共產主義者로 轉向한 셈이다. 李大釗는 國際資本主義의 압제때문에 中國人民全體

1) 中國 최초의 共產主義者로서는 陳獨秀를 꼽는다. 「新青寺」 잡지를 발간하여 中國社會에 새로운 思想을 보급하던 陳獨秀는 1920年 마르크스主義者로 自處하게 되었으며 그해 3月 李大釗가 「北京 마르크스理論研究會」를 조직한 것이 中國에서의 共產主義 受容의 시초이다. Comintern에서는 Voitinsky를 北京에 보내 이들과 만나 共產黨조직을 지원하였는데 5月부터 12月 사이에 中國 主要都市에 共產主義者 조직을 거의 마쳤다. 1921年 7月 中國共產黨은 第1次 全黨大會를 上海서 열고 陳獨秀를 初代 黨委員長으로 선임하였다. 李大釗는 國共合作에 적극적이었으며 共產黨員중 최초로 國民黨員을 겸한 간부가 되기도 하였다. 陳獨秀와 李大釗는 근본적으로 民族主義者였으며 國民黨革命을 지지하던 知識人들이었으며 특히 그는 마르크스主義의 唯物的 기초와 決定論的 法則性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었었다. 그에게 있어서 階級鬪爭은 곧 民族解放鬪爭이었기 때문에 마르크스主義에 동조했던 것이다. 詳論은 다음 資料를 볼것. Maurice Meisner, *Li Ta-Chao and The Origins of Chinese Marx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특히 第8章.

가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했으며 따라서 世界的 次元에서의 프롤레타리아革命에 中國人民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民族解放運動이 곧 階級鬪爭이라고 했다.[2]

反外勢民族解放鬪爭에서는 中國共產黨 지도자들은 國民黨과 생각도, 行動도 같이 했었다. 다만 大地主등의 지지를 받아 투쟁을 벌이던 國民黨과 달리 大地主들로부터 農民을 해방시켜 이들을 主力軍으로 삼아 鬪爭을 벌이려 한 점에서 國民黨과 對峙하게 된 것이다.

中國에서의 마르크시즘의 受容은 中國民族主義와의 결합으로 可能했었고 또한 民族主義와의 결합을 통하여 마르크시즘의 國際主義的 성격은 퇴색되어 버렸다. 그런 뜻에서 中國共產黨은 마르크시즘을 中國的으로 變容하였다고 할 수 있다. 후에 毛澤東思想으로 정리된 中國式 社會主義思想體系는 哲學的 기초에서부터 正統마르크시즘에서 逸脫하고 있어 엄격히 말한다면 마르크시즘의 계승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中國社會主義라 불러야 옳을 것이다.

Ⅲ

韓國에서의 共產主義 受容은 中國처럼 체계적이 되지 못했었다. 日本植民地가 된 韓國에서 日帝의 탄압속에서 地下운동으로 전개되던 民族獨立運動과 관련하여 共產主義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韓國共產主義運動은 露領시베리아의 韓人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볼쉐비키革命 직후 蘇聯共產黨은 그들의 對日鬪爭의 필요에 의해 1918年 1月에 이르크츠크의 共產黨에 金哲勳, 吳夏默 등을 중심으로 하는 韓人支部를 설치하였으며 5個月 뒤인 1918年 6月에는 하바로브스크에서 李東輝, 朴鎭淳 등이 「韓人社會黨」을 건설하는 것을 도왔었다.[3]

---

2) *Ibid*, p. 188.

3) 初期 露領에서의 共產主義運動의 태동에 대해서는 金俊燁, 金昌順 共著, 「韓國共產主義運動史」 第1卷, 서울：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1967, pp. 120~143을 볼 것.

露領의 韓人들의 최대관심은 抗日民族獨立運動이었으며 볼쉐비키가 日本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政府軍과 투쟁을 하는 세력이라는 점에서 손쉽게 볼쉐비키와 협조를 하게 되었음은 이해할만 한 일이었다. 더구나 레닌 등의 少數民族解放 지원약속은 시베리아에서 祖國光復을 위해 싸우던 韓人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기도 하였었다.[4]

國內에서의 共產主義 受容過程은 제한된 자료로 인하여 정확히 추적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海外 韓人共產黨의 國內침투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韓人社會黨의 後身인 李東輝의 上海「高麗共產黨」도 Comintern의 지시에 의해 國內에 조직을 만드는데 노력하였고, 日本留學生 중심의「北星會」등도 같은 노력을 폈으며 이르크츠크派도 國內에 조직을 만들려 하였다. 이들 여러 海外共產黨의 연합된 힘으로 1925年 4月 서울에서 朝鮮共產黨이 조직되어 약 3年간 존속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國內의 民族主義 세력과의 聯合戰線 구축을 모색한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주된 목표는 抗日民族運動이었으며 거기에 社會主義革命을 부차적으로 추가했었던 것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5]

韓國共產主義運動은 日本警察의 철저한 탄압으로 사실상 전개되지 못했으며 1945년 8월 祖國解放까지는 분산된 地下活動밖에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으나 그들이 남긴 글등을 살펴보면[6]

4) 韓人社會黨을 만들었던 李東輝는 大韓帝國 장교로서 軍隊해산후 沿海州서 抗日武裝투쟁을 하던 사람으로 思想的으로 社會主義에 심취했던 사람이 아니었으며 오직 抗日鬪爭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 볼쉐비키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韓人社會黨을 조직했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볼 것. Dae-Sook Suh,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Chp. 1, pp. 4~24.

5) *Ibid*. pp. 53~54.

6) 예를 들어 北朝鮮藝術聯盟 編,「反日鬪士演說集」, 평양 : 농민신문사 출판부刊, 1946 등을 볼 것. 또한 1920年代 民族紙로 알려진 國內新聞들에 소개된 마르크스-레닌主義 소개기사의 體系的 分析을 통하여 劉載天교수는 이러한 신문들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自由主義사상과 함께 계몽적 차원에서 소개했던 것은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민족주의와 현실사회의 제도적 모순을 개혁하는 의지"에서 였으며, "민족개량주의 세력과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통일전선구축"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고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다. 그의 글, "日帝下 韓國新聞의 共產主義 受容에 관한 硏究(其一),"

抗日民族解放과 더불어 社會主義的 改革에 상당히 심취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共產主義의 理論을 다룬 글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체계적인 理論으로 무장된 共產主義者들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韓國共產主義運動史를 일별해 본다면 初期 韓國共產主義 지도자들은 抗日鬪爭 과정에서 外部지원을 얻는 한가지 방법으로 共產主義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으며 民族主義運動과 연계를 맺음으로써 存在意義를 가지게 되었었음을 알 수 있다.

Ⅳ

日本은 近代化과정에서 韓國과 中國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明治維新을 통하여 近代的 立憲君主制를 성공적으로 수립하였으며, 韓國과 滿洲의 植民化를 통하여 國民의 生活向上도 급속하게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近代化의 課題수행에서 마르크스主義가 특별히 매력을 줄 수 없었다. 특히 勤王思想을 중심으로 다듬은 강력한 排他的 民族主義가 近代化의 指導理念으로 일찍 定着하여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표방하는 마르크시즘이 발붙일 여지가 없었다. 오직 知識人 중심의 社會主義理想主義가 한때 풍미했었으나[7] 軍國主義의 탄압을 받아 敗戰때까지 의미있는 運動을 전개하는데는 실패했었다.

「東亞硏究」(西江大東亞硏究所刊) 第7輯(1986), pp. 161~182를 볼 것.

7) 明治社會主義, 大正社會主義를 거쳐 山川主義, 福本主義분열까지 모두 섭렵한 후 朴忠錫교수는 日本共產主義는 "實踐的 運動의 레벨에서 보다는 知的 認識의 레벨에서 成長한 것이 특징"이라고 결론 짓고 그 이유로 "당시의 日本社會가 이미 日本의 傳統文化를 기반으로 하여 강력한 天皇制的 國家體制를 확립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래서 "日本의 마르크스主義는 政治의 領域에서 보다는 학문의 영역에서 그 理論的 深化를 추구하는데 머무르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의 글, "日本에서의 마르크스主義의 受容," 「東亞硏究」 第7輯, pp. 333~357을 볼 것. 戰後 日本共產黨의 새로운 활동방향을 제시한 「宮本路線」의 주창자인 宮本의 思想的 편력을 추적하여 보아도 日本民族主義에의 저항투쟁보다는 社會主義的 改良을 내세우는 知的 主張의 범주를 넘지 않고 있다. 中村勝範, 「宮本顯治論」, 東京 : 永田書房, 1978. 을 볼 것.

日本共產主義는 敗戰 이후 美軍占領下에서 抗美民族主義의 물결을 타고 한때 상당한 政治勢力으로 성장하였었으나 占領종결 이후 政治, 經濟的으로 安定을 되찾은 후에는 이미 政治運動의 指針으로서의 지위는 잃어가고 있다. 革命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레닌主義가 풀어나갈 歷史的 課題가 이미 日本社會에서는 사라졌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미 해방되어 있는 日本프롤레타리아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보다는 民族主義에 더 쏠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V

피압박 人民의 解放의 論理로서의 마르크스主義는 初期資本主義시대의 社會的 계급갈등 해소의 指針으로 강한 訴求力을 가졌었다. 그리고 한 民族이 다른 民族의 支配에서 벗어나려는 民族解放運動의 論理와 결합될 때는 역시 매력적인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졌다.

마르크스主義는 民族을 초월한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를 표방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國際主義는 강한 民族主義전통을 가진 社會에서는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레닌은 마르크스主義의 敎條性에서 戰術的 후퇴를 감행하여 "民族自決主義"를 수용하였다. 즉 피압박계급의 해방논리를 被壓迫民族解放의 論理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理論修正은 마르크스理論家들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었지만[8] 현실적으로 이러한 타협이 없었더라면 革命이데올로기로서의 위력을 잃었을 것이다. 데이비스(H.B. Davies)는 "볼쉐비키는 세계주의와 계급적 지배의 종식이라는 표어아래 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그 혁명이 민족집단의 자유보장이라는 레닌의 原則에 의해서 지도되지 않았다면 「계급없는 국가」는 거의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9]

8) Rosa Luxemburg와 레닌과의 民族主義論爭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볼 것. Horace B. Davis, *Toward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 (전용헌譯), 서울 : 博英社, 1985, 제 3 장, pp. 71~116.

9) *Ibid.* p. 88.

아세아에서의 共產主義 受容過程에서는 마르크시즘의 理論보다도 레닌의 民族自決의 論理가 더 큰 설득력을 가졌었다. 封建體制가 잘 발달되었던 유럽에서의 國民單位의 民族主義는 그 역사가 日淺했었던 데 비하여 數千年을 民族單位로 國家를 이루었던 中國, 韓國, 日本에서는 民族主義는 自明의 生存原理로 이미 모든 사람의 意識속에 고착되어 있었다. 社會內의 階級갈등은 "民族內의 문제"로, 그리고 民族이라는 테두리를 전제로 한 "우리 問題"로 인식하였으며 他民族社會의 같은 階級과의 同類意識을 느낄 수 있는 國際化된 意識은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

스탈린의 定義에 의하면 民族이란 "역사적으로 전개되고, 공통된 영토, 경제적 생활, 그리고 문화공동체에서 표현된 심리학적 구조를 기초로 하여 발생한 안정된 공동체"인데[10] 이러한 定義에 부합하는 가장 완벽한 민족단위가 中國과 韓國에는 이미 千年 이상의 세월속에서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民族意識 속에서 民族을 초월하는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는 뿌리내리기 어려웠다. 결국 아세아에서의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受容은 民族自決主義와의 戰術的 結合에서 革命的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으며 外侵속에서 民族解放을 제 1 차적 과제로 투쟁하던 中國과 韓國에서는 國際的 階級鬪爭 즉 壓制國으로부터의 被壓迫民族의 解放의 論理로 소개된 레닌主義는 손쉽게 民族主義者들과의 統一戰線 구축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共產主義는 큰 저항없이 中國과 韓國의 獨立運動指導者들과 一般大衆에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Ⅵ

中國과 韓國에서의 共產主義 受容은 初期 레닌主義의 「엘리띠즘」에서 벗어난 毛澤東式의 群衆路線戰略에 힘입어 더욱 성공적으로 확산을 기할 수 있었다. 이것은 知識人 중심의 日本共產主義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과

10) *Ibid.*, p. 94.

對照된다.[11]

民族解放運動의 指導理念은 구체적 政治形態에 대한 비젼의 提示까지 포함하는 어떤 政治이데올로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民族의 自主權 회복이라는 단순목적을 내세운 情感的 民族主義 그 자체였다. 政治形態는 일단 民族解放을 이룬 다음의 문제로 留保될 수 있었다. 이러한 단계에서의 民族鬪爭에서는, 적어도 一般大衆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世界觀이나 價値觀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별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점에 착안하여 中國과 韓國의 共產主義者들은 運動展開의 對象을 群衆으로 삼았으며 이 戰略이 주효하여 짧은 시간내에 많은 大衆을 動員할 수 있었던 것이다.

貧寒한 農民이 주류를 이루던 中國과 韓國의 大衆에게 있어서 民族解放과 階級解放을 함께 묶어 提示했던 共產主義의 理念은 큰 호소력을 가질 수 밖에 없었었다. 日本植民支配者와 그들과 결탁한 地主계층을 「敵」으로 하는 투쟁이야말로 자연스럽게 農民大衆이 받아들일 수 있는 論理的 투쟁이었기 때문이다.

外勢侵奪 아래서의 民族主義는 抵抗民族主義로 발전하였으며 이 흐름을 타고 본연의 理念體系內의 理論과 관계없이 이러한 抵抗과 영합함으로써 共產主義는 中國과 韓國에 일차적으로 발붙이게 된 것이다.

Ⅶ

소박한 民族主義運動에 편승하여 一次的 성공을 거두었던 中國과 韓國에서의 初期 공산주의운동은, 일단 革命에 성공하여 共產主義가 國家管理이데올로기의 地位를 얻은 순간부터 逆說的으로 民族主義와의 투쟁 속에

11) 中國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도 初期 知識人 중심의 엘리뜨共產主義는 失敗했었다. 陳獨秀, 李大釗 등의 아카데믹 共產主義運動, 그리고 敎條的 李立三路線 등은 모두 失敗했었다. 毛澤東의 農民中心의 群衆路線으로의 轉換이후 共產主義運動은 성공했었다.

서 苦戰을 겪게 되었다.[12] 共產主義敎理에 따른 階級主義的 社會改革과정에서 民族社會를 階級으로 分裂시켜야 함에 따른 民族主義와의 對決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民族主義는, 특히 아세아民族主義는, 民族成員 모두의 共存의 論理이다. 思想, 階級, 貧富를 초월하여 같은 民族成員이면 모두를 "우리"라는 테두리에 包容하고 함께 잘 살자는 소박한 情感的 理念이다. 바로 이러한 民族感情이 外勢에 저항하는 指導理念이었고 또한 이러한 次元에서 共產主義의 民族解放論을 수용했던 것인데, 이와 같은 傳統的인 民族意識을 거역하는 階級主義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가 용납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中國과 韓國(北韓)에서의 共產主義는 自救策으로 普遍的 共產主義를 變型하여 土着的 共產主義로 발전시켜 民族主義와 영합하려 노력해 왔다. 中國의 毛澤東思想과 北韓의 金日成主體思想은 그 產物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成果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다. 中國에서는 毛澤東死後 1978年부터 鄧小平에 의한 第2의 革命, 즉 敎條的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 離脫한 中國式 社會主義로의 轉換이 시작되고 있다. 社會主義와 中國民族主義의 새로운 結合努力이라 할 새 改革政治는 人民의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 北韓의 경우는 南半部를 「美帝國主義」로부터 해방한다는 虛構的 목표를 내세워, 抗日鬪爭의 가상적 連續線상에서 抵抗民族主義에 계속 편승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南半部」는 日本帝國主義를 승계점령한 「美帝」의 강점하에 있다고 强辯하면서 民族解放運動의 논리로 韓國民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共產主義의 反民族的 속성은 그러나 어느 때고 노출

12) 共產主義는 旣存體制를 부정하는 革命운동과정에서는 매력적인 指導理念이 될 수 있으나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管理이데올로기로 되면 그 매력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共產主義가 제시하는 約束들은 幻想的이어서 꿈으로 남아 있는 동안 설득력이 될 수 있으나 현실로 실현될 수는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점을 Robert Michels는 다음과 같이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The socialist might conquer, but not socialism, which would perish in the moment of its adherents' triumph." Maurice Meisner, *Marxism, Maoism, and Utopianism*,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2, pp. 212~239에서 再引用.

되지 않을 수 없으며 韓國에 民族共榮의 바른 民族主義, 自由民主主義의 共存의 論理와 자연스럽게 맺어진 民族主義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北韓共產主義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아세아에서의 共產主義는 日帝侵略下에서 抵抗民族主義에 便乘하여 수용되었었으나, 逆說的으로 바로 그 아세아民族主義의 成長과 더불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런 뜻에서 아세아에서의 共產主義는 中國과 韓國의 解放過程이라는 한 時代의 「過渡的 現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